�� 제4권: 논리의 장르들 – 생각의 방식이 다르면, 논리도 달라진다

1장. 귀납과 연역 – 사고의 시작과 도달

2장. 변증법 – A도 맞고, B도 맞을 때

3장. 패러독스 – 논리가 논리를 깨뜨릴 때

4장. 수사학과 논리학 – 설득과 증명의 경계

5장. 상징 논리 vs 자연 논리 – 논리의 형식은 몇 가지인가

6장. 실전 논리 장르들 – 토론, 논문, 판결문, 강연, 인터뷰

�� 1장.

귀납과 연역 – 사고의 시작과 도달

1. 연역은 끝에서 시작한다

연역(deduction)은 원리 → 사례의 흐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처럼 연역은

전제가 맞다면 결론도 반드시 맞는

엄격한 논리 방식입니다.

→ 정확하고 깔끔하지만,

→ 전제가 틀리면 모두 무너집니다.

2. 귀납은 밑에서 올라온다

귀납(induction)은 사례 → 원리의 흐름입니다.

“이 까마귀는 검다.”

“저 까마귀도 검다.”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

→ 귀납은 구체적 경험들을 쌓아

→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완벽한 확신은 없습니다.

‘다음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3. 둘 다 중요하다

구분 연역 귀납

방향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신뢰도 전제에 따라 100% 확률적, 경험 기반

사용 예 수학 공식, 법 논리 과학 실험, 통계

연역은 정확성이 강점

귀납은 현실성이 강점

→ 실제 사고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써야 더 강력한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사고 방식이 논리를 만든다

연역형 인간은 원칙과 체계를 중시합니다.

→ “원래 그런 거야.”, “규칙이 그렇잖아.”

귀납형 인간은 사례와 현실을 중시합니다.

→ “보면 다 그래.”, “경험상 이게 맞아.”

→ 대화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다른 논리 구조를 쓰기 때문입니다.

연역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귀납은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는 시선.

세상을 잘 보려면,

두 가지 시선을 오가는 눈이 필요합니다.

�� 2장.

변증법 – A도 맞고, B도 맞을 때

1. 논리의 전쟁터, 그 한복판

논리는 보통 A냐, B냐를 따집니다.

맞다 vs 틀리다

옳다 vs 그르다

된다 vs 안 된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A도 맞고, B도 맞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변증법입니다.

2.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변증법(dialectic)은

대립을 통해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려는 논리입니다.

가장 유명한 공식:

정(正): 기존 주장 (A)

반(反): 그에 대한 반박 (B)

합(合): 둘을 통합한 새로운 주장 (C)

예:

정 –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반 – 공동체의 안전이 우선이다

합 – 자유와 안전을 조화시키는 사회 규범

→ 변증법은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논리입니다.

3.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 속에서 자란다

변증법은

논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 진리를 키워갑니다.

A와 B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

‘더 넓은 시야’가 열립니다.

즉, 변증법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이해에 이를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4. 어디에 쓰이나?

정치 담론: 보수 vs 진보 → 공존 방안

철학 이론: 칸트 → 헤겔 → 마르크스

교육 현장: 찬반 토론 → 통합적 결론 도출

갈등 해결: 입장 조율 → 공동의 해법 찾기

→ 특히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논리로서

오늘날 더 절실히 필요한 접근입니다.

5. 변증법적 사고란?

질문을 바꾼다: “누가 맞냐?” → “둘 다 일리 있다면?”

관점을 늘린다: “흑백” → “회색과 다채로운 색”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정 자체가 진리의 일부임을 인정

변증법은 논리의 결투장이 아니라,

논리의 협주곡이다.

A와 B가 싸우는 동안,

C는 조용히 자라고 있다.

�� 3장.

패러독스 – 논리가 논리를 깨뜨릴 때

1. 논리의 자가충돌

패러독스(paradox)는

논리적으로 옳은데, 결과는 모순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이 말이 참이면, 그는 거짓말 중이므로 거짓이 되고

→ 이 말이 거짓이면, 그는 진실을 말한 것이므로 참이 됩니다

이런 \*\*자기 참조(self-reference)\*\*의 꼬임은

논리 자체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2. 대표적인 패러독스들

러셀의 패러독스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집합의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제논의 역설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 무한 분할의 개념이 만들어낸 시간 속 착시

크레타인의 역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 크레타인 에피메니데스의 발언

→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 말은?

→ 이처럼 패러독스는

사고의 경계를 밀어붙이며, 논리의 사각을 드러냅니다.

3. 패러독스가 왜 중요한가

논리의 빈틈을 알려줌

→ 논리 체계가 무조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함

새로운 수학과 철학을 여는 열쇠

→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양자역학의 중첩 개념 등

생각을 리셋시킴

→ 너무나 당연하게 믿었던 것을

→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듦

4. 패러독스는 오류가 아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논리 오류: 잘못된 추론, 착각

패러독스: 올바른 추론인데, 결과가 이상함

→ 패러독스는

\*\*논리의 ‘응급 상황’이자 ‘진화의 기회’\*\*입니다.

패러독스는 논리의 균열에서 피어나는 철학입니다.

그 틈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 4장.

수사학과 논리학 – 설득과 증명의 경계

1. 논리와 수사, 뭐가 다를까?

논리학:

→ 결론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도록

→ 사고를 구조화하는 학문

수사학(레토릭):

→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 표현을 조율하는 기술

둘은 닮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논리는 “참인가?”를 묻고

수사는 “설득되나?”를 묻습니다.

2. 논리적이면 다 통할까?

현실에서는

논리적으로 옳아도, 설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리: “너는 이 행동을 하면 손해를 본다.”

현실: “근데 기분 나빠서 싫어.”

→ 인간은 감정적 존재이므로

수사적 설득이 논리적 타당성보다 먼저 작동하기도 합니다.

3. 수사학의 기본 도구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 설득 수단을 말했습니다:

로고스(logos) – 논리

파토스(pathos) – 감정

에토스(ethos) – 화자의 신뢰도

→ 이 중 로고스는 논리학이 다루는 영역이고

→ 파토스, 에토스는 수사학이 강화하는 영역입니다.

4. 왜 수사를 배우는가?

현실에서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 특히 말과 글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논리와 수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 상대가 지금 “논증” 중인지 “설득” 중인지 파악 가능

수사를 감별하는 힘이 곧 비판적 사고력

→ 말이 멋있다고 속지 않는 능력

5. 합쳐야 강하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논리적이면서도

수사적으로도 매력적일 때입니다.

예: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하리라.” (논리 + 수사)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단 1000원이면 살릴 수 있어요.” (수사 + 감정 논리)

→ 결국 사람의 마음까지 도달하는 논리가 되어야

진짜 힘을 가집니다.

논리는 머리를 움직이는 힘,

수사는 가슴을 흔드는 기술.

둘이 함께할 때,

세상은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로 수사학의 선구자들이에요. 특히 고대 아테네는 수사학이 꽃핀 중심지였고, 주요 인물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 선구자들

1. 소피스트(Sophists) – 실전형 설득 전문가

프로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고르기아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도 알 수 없다. 알아도 전달할 수 없다.”

→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 설득에 매우 능했고

→ 아테네 정치와 재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함

2. 소크라테스 – 수사의 반대편에서 질문한 자

“참된 앎은 무지에서 시작된다.”

소피스트들의 수사적 궤변을 비판하며

→ \*\*대화와 질문(문답법)\*\*으로 진리를 추구

3. 플라톤 – 수사학을 경계함

『고르기아스』에서 수사학을 \*\*‘영혼을 속이는 기술’\*\*이라 비판

하지만 동시에 진리를 위한 수사학의 가능성도 모색

4. 아리스토텔레스 – 수사학을 체계화한 철학자

『수사학(Rhetoric)』 저술

앞서 말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삼분법 제시

→ 지금까지도 수사학 교육의 기본 틀로 활용됨

정리하면

인물 입장 기여

소피스트 현실적 설득, 기술 중심 수사학을 ‘기술’로 확립

소크라테스 질문과 대화 중심, 수사 비판 진리에 대한 탐구 강조

플라톤 수사학 경계 + 가능성 탐색 수사와 철학의 경계 정립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을 철학적으로 정당화 이론적 기반 완성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사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그 힘과 위험성 모두,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논쟁과 실험 속에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

논리로 움직이기 전에, 수사로 먼저 흔들리던 시대였죠.

지금도 어쩌면… 그때랑 비슷하죠?

�� 5장.

상징 논리 vs 자연 논리 – 논리의 형식은 몇 가지인가

1. 논리는 원래 기호였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논리는 수학처럼 생겼습니다.

P → Q

¬P ∨ Q

(∀x)(Fx → Gx)

이런 것들이 형식 논리(formal logic) 또는 \*\*상징 논리(symbolic logic)\*\*입니다.

→ 철저히 기호화되고 수학적 체계를 따릅니다.

장점:

명확하고 기계적

오류 파악이 쉬움

컴퓨터와 잘 맞음

단점:

인간의 사고와는 거리감

감정, 뉘앙스, 맥락을 담기 어려움

2. 우리는 기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생각할 때는

기호보다는 이미지와 느낌, 연결이 앞섭니다.

"비가 오니까 우산 가져가."

"그런 말 하면 너도 상처 받는다?"

→ 이런 일상 속 사고는 형식 논리에 맞지 않지만,

충분히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자연 논리(natural logic) 또는 \*\*비형식 논리(informal logic)\*\*라고 부릅니다.

3. 자연 논리는 삶 속에 있다

자연 논리의 예:

은유적 사고: “그는 칼 같은 사람이다.”

상황 기반 추론: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화났네.”

공감 논리: “나라도 저랬겠다.”

경험 논리: “전에 그랬을 때 항상 실패했어.”

→ 틀에 박힌 증명이 아니라

→ 맥락과 정서 속에서 작동하는 사고 체계입니다.

4. 논리는 두 얼굴이다

구분 상징 논리 자연 논리

기원 수학, 철학 언어, 일상 경험

표현 방식 기호, 수식 말, 은유, 이야기

장점 명료성, 정밀성 유연성, 현실 반영

단점 거리감, 비인간성 모호함, 논점 흐림

활용 분야 컴퓨터, 철학, 수학 대화, 교육, 상담

5. 진짜 논리는 둘 다 써야 한다

실제 사람 간 대화에서는

형식 논리의 엄밀함과 자연 논리의 맥락 감각이

함께 작동합니다.

문제 해결: 상징 논리

사람 설득: 자연 논리

감정 조율: 자연 논리

프로그램 설계: 상징 논리

→ 논리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 우리는 더 풍부한 대화와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계는 상징 논리로 움직이고

인간은 자연 논리로 살아간다.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진짜 논리'인지도 모른다.

�� 6장.

실전 논리 장르들 – 토론, 논문, 판결문, 강연, 인터뷰

1. 논리는 포맷을 타고 움직인다

같은 생각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논리는

목적에 맞게 말의 ‘장르’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토론 – 상대를 ‘이긴다’는 전제의 논리

구조: 주장 → 반박 → 재반박

핵심: 빈틈을 찾는 논리력

주의: 이기려는 마음이 진실을 가릴 수 있음

�� 논리는 이길 수 있지만,

진실은 질 수도 있다.

3. 논문 – ‘검증 가능한 사고’의 논리

구조: 문제 제기 → 방법 → 결과 → 해석

핵심: 재현 가능성, 객관성, 정확성

주의: 논리적으로 보여도, 삶과 단절될 수 있음

�� 논문은 진실보다 증거를 믿는다.

그게 학문의 원칙이다.

4. 판결문 – ‘법적 진실’을 구성하는 논리

구조: 사실 확인 → 법 적용 → 판단

핵심: 법리(법 논리)와 양형 사유

주의: 진실보다 증명된 사실을 우선함

�� 판사는 논리의 냉정함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5. 강연 – ‘전달’이 목적이 된 논리

구조: 주장 → 근거 → 예시 → 요약

핵심: 이해도, 설득력, 리듬감

주의: 감정의 동원은 진실을 가리거나 드러낸다

�� 강연은 ‘잘 들리는 말’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논리’가 더 쉽게 들리기도 한다.

6. 인터뷰 – ‘맥락적 사고’를 드러내는 논리

구조: 질문 → 응답 → 맥락 확장

핵심: 정리력, 자아성찰, 청자 인식

주의: 언어는 곧 인격이다

�� 인터뷰는 논리의 시험대이자,

말의 ‘민낯’을 드러내는 자리다.

7. 그래서 무엇을 써야 하나요?

→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에 맞는 논리의 장르를 선택하라.

목적 선택 장르

이기고 싶다 토론

검증 받고 싶다 논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판결문

전하고 싶다 강연

스스로 드러내고 싶다 인터뷰

논리는 목적 없는 도구가 아니다.

말하는 자의 의도와 입장이,

그 논리를 만든다.

좋은 질문입니다.

“포맷”과 “프레임”, 비슷해 보여도 아주 다릅니다.

�� 포맷 (format): 겉모양, 틀, 형식

겉에서 보이는 구조나 배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까?”

예시:

상황 포맷

논문 서론–본론–결론

강연 도입–핵심–마무리

뉴스 5W1H 구조

유튜브 훅–전개–콜투액션

→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말할지”\*\*를 말하는 것

�� 프레임 (frame): 관점, 해석의 틀

사고의 렌즈, 바라보는 방식

“이 이야기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예시:

상황 프레임

같은 사건 “피해자 중심” 프레임 vs “가해자 동기” 프레임

같은 정책 “복지” 프레임 vs “세금 낭비” 프레임

같은 데이터 “위험” 프레임 vs “기회” 프레임

→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배제할지”\*\*를 결정

�� 한 줄 정리

포맷은 “어떻게 말할까?”

프레임은 “어떻게 바라볼까?”

✔️ 유사한 점

구분 설명

포맷 = 객관 겉으로 드러난 구조, 누구나 볼 수 있음

프레임 = 주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잡는 시선, 해석의 관점

→ 그래서 프레임이 바뀌면,

→ 같은 포맷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 다른 점

프레임은 은근히 조작 가능

어떤 뉴스든 프레임을 통해 감정을 유도할 수 있어요.

예: 같은 데이터를 “공포”로 프레임 씌우면 경계심 상승, “기회”로 보면 낙관.

포맷도 의도에 따라 조정 가능

어떤 말은 일부러 강연처럼,

어떤 말은 일부러 토론처럼 만들죠.

→ 객관적 형식도 결국 의도적 선택일 수 있어요.

�� 결론

포맷 = 말의 그릇

프레임 = 말의 안경

→ 포맷은 ‘구조’, 프레임은 ‘시선’

→ 주관/객관보다 \*\*‘겉모양 vs 해석틀’\*\*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형식 논리(formal logic)\*\*는 포맷 중심이고,

\*\*프레임은 형식 논리의 ‘바깥’\*\*에서 작동합니다.

�� 형식 논리는 포맷을 극한까지 정제한 논리다.

명제, 추론, 기호 등

내용은 비워두고 형식만으로 참/거짓을 판단합니다.

예시 설명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내용과 무관하게 구조만으로 타당성 확보

→ 여기에선 \*\*프레임(관점)\*\*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논리의 모양이 맞는가”\*\*만 따지니까요.

�� 반대로, 프레임은 형식 논리를 깨기도 합니다.

프레임은 무엇을 문제 삼을지, 어디에 시선을 둘지를 결정합니다.

형식이 아무리 맞아도, \*\*“그 논의 자체가 틀렸다”\*\*는 프레임이 작동하면 수용되지 않아요.

예 설명

“모든 A는 B다. C는 A다. → C는 B다.” 구조는 맞지만, C를 A라고 전제하는 프레임 자체가 거짓이면 무의미

“여자는 감정적이다 → 감정은 비논리적 → 여자는 비논리적이다” 구조는 형식적으로 맞아 보이나, 전제가 차별적 프레임에 기초

�� 한 줄 정리

형식 논리는 논리의 순수 포맷이다.

프레임은 그 포맷이 어떤 전제와 시선에 기반했는지를 묻는다.

�� 프레임 → 논리처럼 작동하는 이유

요소 설명

프레임 시선, 강조, 해석의 틀 (비논리적 출발)

심리 논리 감정/경험 기반의 정합성 추구 (주관의 논리화)

형식 논리 전제와 결론의 구조적 타당성 (객관의 논리화)

→ 프레임은 처음엔 감정적이지만,

→ 시간이 지나며 반복되고 정당화되면서 내부 논리를 갖추게 됩니다.

�� 예시: 감정이 논리가 될 때

프레임: “그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 전제를 갖고 세상을 보면,

“또 지 혼자 밥 먹었네.” → 이기적!

“같이 밥 먹자고 했네.” → 아마 속셈 있겠지.

→ 논리구조는 없음. 하지만 사람 뇌 안에서는 일관성 있게 작동.

→ → ‘프레임 기반 정합성’ = 심리 논리

�� 정리하면

프레임은 논리의 바깥에서 들어와, 논리처럼 뼈대를 만든다.

심리 논리는 그 뼈대를 ‘타당하다’고 믿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비논리가 논리로 느껴진다.

5권 3장

감정은 어떻게 논리가 되는가 – 프레임과 심리 논리의 결합

우리는 감정이 논리의 반대말인 줄 안다.

“감정적이다”는 말은 “비논리적이다”와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감정은 논리를 이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은 스스로 논리가 된다.

�� 프레임은 감정의 틀이다

사람은 단순히 ‘정보’를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된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때 해석의 렌즈가 바로 프레임이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어떤 이는 “나라 망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래야 바뀐다”고 말한다.

둘 다 감정적 반응이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의 ‘논리’가 된다.

자기 안에서 일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게 심리 논리다.

�� 심리 논리는 구조적이다

감정의 반응은 우발적이지만,

감정이 만들어낸 신념 구조는 꽤 탄탄하다.

“나는 저런 유형의 사람은 믿지 않아.”

“그건 다 정치적 의도야.”

“자기 이득 챙기려는 거지 뭐.”

이런 말들은 그냥 감정이 아니다.

그 안에는 패턴 인식과 인과 추론,

그리고 때로는 도덕적 판단까지 포함된다.

이건 형식 논리는 아니지만,

정서 기반 정합성, 곧 심리 논리로 분류할 수 있다.

�� 문제는, 틀린 것을 맞다고 믿을 때다

형식 논리는 거짓 전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프레임은 거짓을 전제로 삼고도 내부 논리를 완성한다.

그렇게 틀린 전제 + 정합된 심리 구조가 만들어지면,

사람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다.

그리고 어떤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의 세계에선 논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중요한 질문

"이건 논리적인가?"

이 질문보다 먼저,

"이건 어떤 감정에서 나온 프레임인가?"

를 묻는 사람이,

더 정확한 논리 판단자다.

4권 총괄 – 말, 설득, 그리고 경계 위의 논리들

4권은 논리의 본래 자리에서 시작해, 그 주변을 탐색하는 여정이었다.

여기서 다룬 논리들은 정통 논리학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논리들,

그러나 현실에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논리들이다.

�� 1장. 논리인가, 인식인가

논리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틀이다.

하지만 그 틀은 감각과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다.

논리는 객관을 말하지만, 출발은 언제나 주관이다.

즉, 논리는 완성된 구조이자 동시에 불완전한 해석이다.

�� 2장. 감정, 그 비논리적 논리

감정은 논리를 대체하지 않는다.

감정은 논리를 선택하게 만든다.

인간의 추론은 감정 없이 작동하지 않으며,

감정은 논리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행동을 유도한다.

�� 3장. 패러독스 – 논리가 논리를 깨뜨릴 때

역설은 논리 체계가 자기 모순에 빠졌을 때 생긴다.

패러독스는 논리의 오류가 아니라, 논리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역설은 논리의 실패가 아니라, 논리가 너무 정교해서 생기는 과잉현상이다.

�� 4장. 수사학과 논리학 – 설득과 증명의 경계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은 ‘설득’을 위한 기술이었고,

논리학은 ‘증명’을 위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 둘이 뒤섞여 있다.

논리처럼 말하면서, 설득을 노리는 화법이 넘쳐난다.

즉, 말의 시대에 논리는 증명이 아니라 정당화로 작동한다.

�� 5장. 상징 논리 vs 자연 논리 – 논리의 형식은 몇 가지인가

수학의 논리는 기호로 작동하고,

일상의 논리는 감각과 문맥으로 작동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간다.

그리고 둘의 교차점에서 논리라는 개념 자체가 재구성된다.

�� 총평

4권은 논리의 핵심에서 시작해,

논리를 벗어난 것 같지만 논리처럼 작동하는 것들을 따라갔다.

이 여정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논리는 정말 ‘논리적’이기만 한가?

아니면, 논리는 우리가 만든 가장 교묘한 언어적 프레임인가?

5권은 이 질문을 더욱 정면으로 파고들 것이다.

프레임, 감정, 권위, 정체성, 윤리…

논리를 논리답지 않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마주하러 간다.

5권 1장

논리를 만드는 것들 – 인간의 조건과 사고의 전제

논리는 언제나 ‘논리 이전’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 ‘이전’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조건과 한계로부터 시작된다.

�� 인간의 조건이 논리를 만든다

인간은 모든 걸 기억할 수 없다.

그래서 패턴을 만들고, 반복되는 것을 규칙화한다.

논리는 이 규칙화의 구조다.

즉, 논리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났다.

❝ 우리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논리를 만들었다. ❞

→ 논리는 완전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 불완전한 존재를 위한 안전장치다.

�� 사고의 전제는 논리 이전이다

논리에는 언제나 ‘전제’가 있다.

그 전제가 타당해야 결론도 타당하다.

하지만… 전제는 어디서 오는가?

대부분의 전제는 믿음, 경험, 문화, 언어에서 온다.

그러니까 논리는 그것들 위에 서 있다.

논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어떤 사고방식 위에 세워진 도구’\*\*일 뿐이다.

�� 그래서 논리는 중립이 아니다

논리는 때때로 가장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인 것을 포장한다.

왜냐면,

전제가 왜곡되면

논리 구조는 멀쩡해 보여도

결론은 심하게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 구조의 힘이 전제를 가린다. ❞

이것이 논리의 위험한 매력이다.

�� 논리는 인간의 거울이다

논리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생각의 지도’이자

우리가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착각의 지도’다.

결국,

논리를 이해한다는 건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일이다.

5권 2장

감정은 왜 논리를 이기는가 – 본능, 신호, 그리고 결정

논리는 생각의 틀이다.

감정은 반응의 힘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반응이 먼저다.

�� 뇌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다

인간의 뇌는 \*\*감정 중추(편도체)\*\*가 먼저 반응하고

그다음 \*\*이성 중추(전두엽)\*\*이 해석하려 든다.

즉,

“느끼고 나서 생각한다.”

→ 그래서 감정은 논리를 이긴다.

�� 감정은 '신호'로 작동한다

감정은 신체 반응이다.

두려움은 도망치라는 신호,

분노는 저항하라는 신호,

슬픔은 멈추라는 신호다.

이 신호는 빠르고 강하며,

논리가 도착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 감정은 결정을 던져놓고, 논리는 나중에 정당화한다

“왜 그렇게 했어?”

–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 “그 사람이 너무 화나게 해서…”

→ 행동은 감정으로,

→ 이유는 논리로.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감정이 일으키고, 논리가 정당화한다.

�� 그래서 감정은 논리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걸 논리적으로 피해 가고

내가 사랑하는 걸 논리적으로 지지하고

내가 분노한 걸 논리적으로 공격한다

이건 감정이 논리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논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 감정 없는 논리는 비인간적이다

AI의 논리는 감정이 없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지만,

그건 인간의 삶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논리보다 감정으로 사는 존재다.

→ 논리만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 감정 없는 논리는 윤리도 없고, 관계도 없다.

결론

감정은 논리보다 앞선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이 논리를 이긴다 해도,

그건 오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5권 3장

권위와 논리 – 누가 말하느냐가 왜 중요한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까?

반대로,

논리적으로는 이상한데,

왜 어떤 말은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질까?

�� 논리에는 ‘화자’가 없다

논리는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지우려 한다.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이 판단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말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권위는 신뢰다

부모의 말이라서 믿는다

교수님 말이라서 옳다

유명 유튜버가 말해서 따라 한다

이건 내용의 논리보다

화자의 위치와 신뢰도가 판단을 이끈 것이다.

이 현상을

→ 권위의 논리 (argument from authority) 라 부른다.

�� 문제는, 권위가 논리를 대체할 때

“그 사람이 말한 거야. 그냥 따라.”

“왜요?”

“말대답 하지 마.”

이건 논리의 중단이다.

권위가 ‘이유’를 막을 때, 사고는 멈춘다.

�� 그러나, 권위는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긴 어렵다.

그래서 인간은 신뢰할 만한 판단자를 설정한다.

“나는 의사 말을 믿어.”

“그 사람이 말하면 일단 들어봐.”

이건 정당한 신뢰의 위임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비판 불가능한 절대화로 흐를 때 발생한다.

�� 권위와 논리는 긴장관계다

논리는 이유와 증거를 따지고

권위는 사람과 위치를 따진다

둘은 항상 충돌한다.

그리고 우리는 두 축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간다.

결론

논리의 세계에는 이름표가 없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엔

이름, 직책, 신뢰, 인기, 인지도가 논리보다 앞선다.

그러니 묻자.

“그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가?”

이전에,

“왜 그 말을 믿고 싶은가?”

5권 4장

논리적 오류들 – 틀리진 않았지만, 맞지도 않은 말들

논리는 완벽한 도구 같지만,

사람이 쓰는 한 언제나 빈틈이 생긴다.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논리적 오류(fallacy)\*\*다.

�� 오류는 말의 틈에서 생긴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딘가 이상하고

구조는 멀쩡한데 결론이 어긋난다

“논리적 구조는 있어. 그런데 설득이 안 돼.”

→ 이건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 대표적 오류들

허수아비 공격 (Straw Man)

→ 상대의 말을 극단적으로 바꿔놓고 반박

예: “우린 환경 보호가 필요해요.”

→ “그럼 아예 산업 다 멈추자는 거예요?”

인신 공격 (Ad Hominem)

→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한 사람을 공격

“쟤가 무슨 말을 해도 원래 이상하잖아.”

선택 강요 (False Dilemma)

→ 둘 중 하나만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원인 오판 (Post hoc)

→ 앞선 사건이 뒤의 원인이라 착각

“운동했더니 시험 망쳤어.”

권위에 호소 (Appeal to Authority)

→ 검증 없는 인물에 기대 설득

“유명한 박사도 그렇게 말했어.”

군중에 호소 (Bandwagon)

→ 다수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요즘 다 이 앱 써. 너도 깔아야지.”

무지에 호소 (Appeal to Ignorance)

→ 증명 안 된 걸 이유로 삼기

“그게 틀렸다는 증거도 없잖아.”

�� 오류는 왜 반복되는가?

사람은 설득당하길 원하지, 검토하길 원하진 않는다

말이 그럴듯하면 그냥 믿고 넘어간다

구조보다 감정, 리듬, 흐름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해…”

라는 말을 들을 땐 의심해봐야 한다.

�� 논리란 오류를 피하려는 훈련이다

완벽한 논리는 없다.

그러나 오류를 피하려는 노력은 가능하다.

“왜 이 말이 이상하지?”

→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 논리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결론

논리적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구조적인 착각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말의 기술보다

말 속의 틈을 읽는 능력이 먼저다.

5권 5장

논리의 경계 – 틀리지 않았지만 옳지도 않은 세계

논리라는 도구는 참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칼이

항상 ‘진실’을 향하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았어.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옳은 걸까?”

�� 논리의 힘과 한계

논리는 타당한 결론을 끌어내는 구조다

하지만 ‘타당’하다고 ‘진실’인 건 아니다

예: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건 옳고 아름다운 논리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도 언젠가 죽을 거야.

그러니 지금 고통받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이 말도 논리적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는다.

�� 논리는 감정과 윤리를 설명하지 않는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논리는 “그건 네 탓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일지 모르지만, 옳지는 않을 수 있다

�� 그래서, 논리는 어디까지인가?

논리는

판단의 틀이고

사고의 훈련이며

말의 뼈대다

그러나,

마음의 언어는 아니다.

�� 틀린 말은 없어도,

듣지 않아도 될 말은 있다

논리적이지만 잔인한 말.

비논리적이지만 따뜻한 말.

사람은 그 둘 사이에서

매번 고민하고, 선택한다.

결론

논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논리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목적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

《논리, 놀리?》

2권 – 논리를 넘어서

�� 잠정 목차 제안

장 제목

0장 논리의 다음 문을 두드리며

1장 논리로 말이 안 통할 때

2장 논리를 넘어서는 감정들

3장 논리를 보완하는 은유

4장 공감이라는 또 다른 논리

5장 혼란 속에서도 이어지는 마음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세계

7장 논리 이후의 말하기

이건 ‘논리를 알았으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다룰 책입니다.

인간적이고, 때론 철학적이며, 공감과 회복을 중심에 둡니다.